



3면

"1000만원 빛 떠넘기는 美 요구, 즉각 멈춰라"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음 8월 3일)

제382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지역경제 · 민생지원 · 안전대응 주력

도,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4개 분야 14개 과제 중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역상품권 할인율 확대
물가책임관 지정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며 이번 추석 연휴가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활기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석절에 특별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운영되는 이번 대책은 민생지원, 편의지원, 경제안정,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도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낼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명절 기간 동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2,94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59개소에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고, 경로 식당 이용이 어려운 독거노인 2,400여 명에게는 명절 음식을 배달할 계획이다.

장애 이동 돌보미 과전 강화는 물론, 자립 준비 청년, 노숙인, 결식아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 소외계층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놓치지 않는다. 총 4,312억원 규모의 '희생보듬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명절 전 2주간 특례보증 표준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의 편안함을 위한 이동에 특별 교통대책도 가동된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도내 공영주차장(35,632면)은 무료로 개방돼 주차 걱정을 덜 수

있다. 고속버스(하루 100여 대)와 철도(11일간 90회 증회 운행) 등 대중교통 수송능력도 확충하고, 연안 여객선에는 승무원을 추가 배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도내 38개 차량 정비업체도 상시 운영되어 갑작스러운 차량 문제에 대비한다.

응급 의료체계도 강화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당직 의사·약국이 지정돼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최대 150만원으로, 할인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물가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진다.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가책임관'이 지정되고,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물가 유지에 힘쓴다.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도에서는 이번 추석절 민생안정 대책 발표하면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적극 널리 알리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고향사랑기부제, 연휴기간 가뭄만한 관광지 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소망한다"며 "도민 모두가 함께 살피고, 나누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빈틈없이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혁신대상〉 강주일 〈경제대상〉 이주협 〈문화대상〉 임오경 〈나눔대상〉 김영일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확정

혁신 -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 · 경제 - 이주협 대륜산업 대표
문화 - 임오경 민주당 의원 · 나눔 - 김영일 천일주택 회장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범 도민을 선발하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4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도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수여된다.

또한 이들에게는 데미썬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연2회), 119안전센터 합관 이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50%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1996년 제정돼 올해로 30회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총 178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전북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도는 혁신·경제·문화·나눔 4개 분야에서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시·군 및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32명을 접수한 뒤, 현지 조사와 예비·본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혁신대상 강주일 (주)아이버스 대표이사, △경제대상 이주협 대륜산업 대표이사, △문화대상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대상 김영일 천일주택 회장 등 총 4명이다.

천일주택건설 회장 등 총 4명이다.

먼저, 강주일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의 고상형 친환경 통학버스를 개발하여 차량 내 잔류 인원 확인 장치, 3점식 어린이 전용 독립시트 장착, GPS를 이용한 통학버스 통합제어시스템 등 교통 안전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주협 대표이사는 환기 송풍기 및 소방 제연팬과 신규개발과 양산화를 위해 신규 공장 부지 매입, 지역 인재 채용, 해외시장 수출관로 개척, 꾸준한 지역사회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임오경 의원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전북 기반 확보와 특별법 추진, 새만금 예산 3,000억원 증액, 전북을 문화, 관광, 체육,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K-컬처 성지 전북 프로젝트' 추진 등의 전북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끝으로, 김영일 회장은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을 위해 장학회 운영, 대학 기금 후원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외계층의 마을 치유를 위해 행복전도사로 '해피니스사운드'를 결성해 꾸준한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 콘퍼런스 성공 '맞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제 이차전지 기술의 미래를 엿보는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기전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이 모일 예정이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이를 위해 SK에너지출연, 포스코퓨처엠, NIO(중국) 등 국내외 우수 기업이 강연을 통해 참여할 예정으로 총 18개 내외의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배

터리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점과 지원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2025 I.B.T.F. in 새만금"에서 국내외 독보적인 기업들 간 교류를 통해 혁신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콘퍼런스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거점으로 도

새만금청, 도·군산시 등과 협약
I.B.T.F. in 새만금, 내달 23~24일

약하는데 필요한 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I.B.T.F. in 새만금' 행사는 10월 2일부터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ibtf.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 기자

도, 26~28일 '2025년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전북산 축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우·한돈·산란계·낙농·오리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NH농업융합공동사업법인, 전북한우협동조합, 농협목우촌, 임실치즈농협 등 18개 기관·업체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도민들은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100g당 가격으로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가공품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이만호 기자

넉넉하고 풍요로운 秋夕 보내세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가위의 따뜻한 정과 넉넉한 기운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바라며
남원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